

致 辭

進取的인 科學研鑽으로

새 마을 技術奉仕團 活動은 農漁村 科學化的 본보기

親愛하는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會員과 任職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內外貴賓 여러분!

本人은 오늘 科學技術人的 總本山인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 創立일
誌 紀念式에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음을 無限히 기쁘게 生覺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科學技術人的 宿願이었던 科學技術會館의 竣工을 兼하게
되니 겹치는 慶事를 慶賀하며 아울러 同會館建立에 積極協力하신 여러분
께 깊은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 總聯合會가 10年の 歷程을 거치는 동안 142個 學會및
團體의 總聯合體로 成長하여 우리 科學技術界의 核心을 이루고 그 基盤을
굳힌것은 科學技術界의 元老들과 會長團및 任職員 여러분 그리고 全國 8
萬餘 科學技術人들의 獻身的인 努力의 結果라는데서 本人은 이자리를 빌
어 그 勞苦에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只今 高度의 科學技術이 國際社會를 支配하고 있는 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科學의 發達과 技術의 進歩가 時時刻刻으로 새로워 지는
때도 일찌기 없었습니다.

20世紀 文明은 科學技術의 바탕 위에서만 이룩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다
투어 科學技術을 開發하므로써 國力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憲法에 「國家經濟 發展을 위한 科學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
다」고 한것도 바로 이것을 이룸입니다. 날로 熾烈해 가는 國際競爭 社會
에서 우리가 對處해 나가자면 進取的인 科學의 研鑽과 革新的인 技術을開
發하여 產業의 先進國化를 期하여야 할것입니다.

科學技術의 振興은 政府의 힘 만으로는 不可能합니다. 先頭에 科學者,
技術者가 나서야함은 勿論 은 國民이 科學을 尊重하는 風土위에서 協力해
나감으로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國土는 비좁고 天賦의 資源制約等 隘路點이 있으나 우리에게
는 슬기를 지닌 豊富한 人的資源이 있습니다.